

# 東洋의發明

## 그 뿌리를 찾는가

### 病有六不治

扁鵲은 이처럼 전문화하고 합理化해가는 漢醫學 발달의 시조가 된 사람이라 하겠다.

扁鵲의 질병에 대한 태도는 《史記》에 나오는 그의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그에 따르면 병이 낫지 않는 데에는 6가지의 이유가 있다(病有六不治).

- ① 잘날채만하며 이치를 따르지 않는 것이 한가지이며(驕恣下論於理 一不治也)
- ② 재물보다 재물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두째 이유이고(輕身重財 二不治也)
- ③ 먹고 있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것이 셋째이며(衣食不能適 三不治也)
- ④ 음양과 臟氣가 안정되지 않음이 네번째 이유이고(陰陽并藏氣不定 四不治也)
- ⑤ 몸이 허약하여 약을 복용할 수 없음이 다섯째이고(形羸不能服藥 五不治也)
- ⑥ 무당을 믿고 의사를 믿지 않는 것이 여섯째 이유이다.(信巫不信醫 六不治也)

이 중에도 특히 마지막 항목에서 그가 무당을 믿지 말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라고 말한 것은 春秋戰國시대에 있어나고 있던 疾病觀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漢醫學이란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는 동양의학의 기초는 이와 같은 扁鵲의 태도를 근거로 하여 漢代에 크게 일어난 것이었다.

### 諸者百家的 思想家

춘추전국시대는 中國史에서 정치적으로는 가장 혼란

한 시대였으나 思想의 自由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눈부신 발달을 이룬 시기였다. 封建諸侯가 각지방을 차지하고 정치적인 지배권을 확장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던 이시기는 바로 이들 諸侯가 서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모든 종류의 학자를 환영하던 시대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亂世를 헤쳐 가는데 나름의 생각을 발전시킨 思想家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 이 나라에서 저나라로 각지를 돌며 자기 주장을 펴게되었다.

百家爭鳴이요 百花齊放의 시대였다. 모든 주장을 가진 학자가 서로 자기 주장을 의치고 갖가지 사상이 난만한 꽃을 피우던 이 시대에 東洋의 自然觀도 그 씨를 뿌려가고 있었다. 諸子百家的 사상이 가운데 중요한 것들로는 <漢書>藝文志에 나오는 다음 9家を 들수 있다.

- ① 儒家 ② 道家 ③ 陰陽家 ④ 法家
- ⑤ 名家 ⑥ 墨家 ⑦ 縱橫家 ⑧ 雜家 ⑨ 農家

이 가운데 韓非子로 대표되는 法家의 사상은 현실주의적 정치사상으로 뒷날 秦始皇帝의 통치이념을 제공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역사적 위치를 갖고는 있으나 科學의으로는 중요하다고 하기 어렵다. 農本思想을 내세웠다는 農家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사상가도 또 그들의 주장도 상세히 전하지 않는다. 여하튼 이들 역시 독특한 自然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經濟思想家라 보는 편이 옳을 것 같다.

蘇秦·張儀로 대표되는 縱橫家란 外交를 통해 전국시대의 분열과 상쟁을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史記>列傳에 이들의 행적이 잘 기록돼 있으나 科學史에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 하겠다. 雜家は 이 시대의 여러가지 주장을 절충해서 주장한 여러 사람들을 일컫은 것이지만 역시 뚜렷한 사상가도 없고 일관된 주장도 없다. 오히려 그후 漢 나라를 전후하여 쓰여진 <淮南子>

- …… 우리는 흔히 現代 發明科學은 17世紀 이후 西洋에서 始作된 것의 延長으로 東洋의……○
- ……發明科學과는 關聯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
- ……이다. 發明科學史는 西洋의 것만이 아니라 東洋의 것도 包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특히 東洋 發明科學史 중에서도 지금 우리의 血管속에 흐르고 있는 韓國 發明……○
- ……科學史의 背景을 이루는 中國의 發明科學的 傳統에 이해가 극히 重要함을 느끼게……○
- ……된다. ……○
- ……이와 함께 佛敎를 통하여 우리의 傳統文化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印度의 自然……○
- ……觀과 우리와 비슷한 傳統에 속하면서도 재빨리 近代 發明科學과 技術의 수용에 成……○
- ……功하여 先進國으로 成長한 日本의 近代 發明科學의 발달상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
- ……이에 本誌는「韓國의 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에 이어「東洋의 發明」의 뿌리를 追……○
- ……跡해 보았다. ……○ <編輯者 註> ……○

또는 그보다는 앞서 쓰여진 <呂氏春秋> 등이 雜家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은 自然觀에 관한한 道家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확실하고 또 뒤에 漢代의 과학사상을 다룰 때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諸子百家의 사상 가운데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볼 경향은 나머지 사상가들, 즉 儒家·道家·墨家·陰陽家·名家의 다섯가지가 된다. 이들 五家의 사상은 서로 크게 다른 특징을 東洋思想에 남겼고 이들 다른 특징 가운데 어느 것은 뒷날 서로 어울려 발전하고 또 어느 것은 영원히 사라져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고 보인다.

### 儒敎와 自然觀의 빈곤

우리는 東洋社會를 흔히 儒敎傳統으로 특징지워 볼 수가 많다. 그만큼 孔子·孟子등으로 대표되는 儒敎는 2千年 이상의 東洋史를 거의 완전히 지배해온 정신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디로 儒敎라고는 하지만 儒敎의 전통은 孔子와 孟子가 살던 소위 先奏(奏이전) 시대의 그것과 그 이후의 그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유교전통 자체가 과거 2500年 동안 몇차례 중요한 변화를 거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朱子學 또는 性理學이라 부르는 儒敎에는 상당한 정도의 自然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만 이를 가지고 孔孟당시의 原始儒敎에도 깊이 있는 自然觀이 있었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孔子(551~479BC)와 孟子(371~289BC)의 사상을 관통하는 근본정신은 사랑(仁)을 통해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겠다는 것이었을 뿐 自然에 대한 관심은 거의 보

이지 않고 있다. 亂世의 사상가들이 自然에 눈을 돌리기 보다는 직접 政治문제나 社會·經濟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는 소크라테스도 비슷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이미 自然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가졌고 다시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古代 최고의 科學思想家였던 것과는 달리 中國에서는 孔子의 제자는 스승과 똑같이 自然에 대해서는 무관심한채 儒敎가 전개돼갔다.

孔子의 言行이 상당히 소상하게 적혀 있는 <論語>를 보거나 같은 의미에서 孟子의 사상이 담긴 <孟子>를 읽어보거나 그들의 自然觀은 빈곤하기 짝이 없음을 알 수가 있다. 도대체 原始儒學에는 이렇다 할 自然에 대한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論語>에 따르면 孔子는「怪力이나 亂神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子不語怪力亂神一述而) 또 鬼神은 공경하되 멀리하라(敬鬼神而遠之一雍也)고 가르쳤다. 얼핏보아 상당히 合理的인 태도로서 높이 평가받을 수도 있는 측면이다. 그러나 온갖 鬼神을 인정하고 인간의 모든 일에 초자연적인 힘의 작용을 당연시 하던 당시에 나타난 이러한 孔子의 合理主義는 自然에 대한 無關心을 부산물로 낳았다.

孔子·孟子의 근본적 관심은 인간세상의 문제였고 이 문제는 自然이나 超自然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孔子는「아직 인간의 일도 모르는데 어찌 鬼神에 대해서까지 상관하겠느냐?」(未能事人 焉能事鬼一先進)고 말하고 있다. 또 그 제자들은 孔子가 인간의 本性이나 자연의 이치 같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던 것이다(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一公治長). 이와 같은 孔子의 태도가 孟子에게서는 조금 달라져 孟子의 근본사상에는 性善說로 널리 알려진 그의 인간 本性에 관한 주장이 깔려있다. <계속>